

HOME > 뉴스 > 자치구공단

마포구공단, 제81회 식목일 기념 '기후위기 대응 나무심기' 행사 개최

✎ 김혜란 기자 | Ⓢ 승인 2026.04.07 17:04

공단 임직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회와 힘 합쳐 묘목 100여 주 식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기후위기 대응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김혜란 기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황진택)은 지난 3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기후위기 대응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진택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50명과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회(회장 정양호) 회원 13명 등 총 63명이 참여해, 시장 내 녹지공간에 약 100여 주의 묘목을 식재하며 도심 속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공단은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이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녹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는 공단과 시장 입주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ESG 실천 사례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식목행사를 기념해 식재 중인 (좌) 황진택 이사장 직무대행과 (우) 정양호 상인회장

황진택 이사장 직무대행은 “오늘 심은 나무는 단순한 식재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친환경 경영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에도 녹지 확충, 친환경 시설 운영,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혜란 기자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